

축사

존경하는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한국불교는 새로운 중흥의 기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서리를 맞고 달을 벗삼아 정진한다’는 상월선원의 개원은 이와 사의 정신이 모여 강단 있는 결기를 모아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도입니다.

출가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통해 불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신도들에게는 신심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종단적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발전 동력으로 지대한 공헌을 할 것입니다.

산속의 신비함을 벗고 대중이 살아 숨쉬는 세간으로 내려와 진행되는 용맹정진은 이념과 사상, 지역과 종교 등 다양한 갈등으로 상처 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에도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게 진행되는 상월선원이 끝까지 무탈하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어렵게 시작된 이번 정진을 두고 구업을 짓는 행위로 서로를 평가르고 편협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삼가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마음이 모일 때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듯이 상월선원의 참 뜻을 우리가 더욱 발전시켜 한국불교가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소납 역시 이 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63년 11월 4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